

Animal & MICROBIOME



똥은 일부 동물들에게는 주식 뿐 아니라 영양 보충제의 역할도 한다. 초식동물의 장은 처음부터 식이 섬유를 소화 할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어미의 장에 있는 식물을 소화 시키는 장내 미생물총의 이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끼 코끼리의 경우 장내균총을 확보하기 위해 어미의 배설물을 먹으며, **원숭이**도 영양을 보충할 목적으로 변을 먹는다. **코알라**는 새끼 코알라에게 어미 코알라가 자신의 똥을 먹인다. 정확히는 독성이 있는 **유클립투스** 잎을 먹기 위해선 코알라 특유의 장내 세균이 필요한데 갓 태어난 새끼에게는 그 균이 없다. 그래서 어미가 먼저 먹고 독을 어느정도 제거한 채로 장내 세균과 같이 먹이는 것이다.



토끼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똥을 다시 먹는 경우가 있다. 식변이라고 하는 이똥은 마른 똥과는 달리 젖은 상태로 촉촉하게 배출되는데 장 미생물총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새끼에게 먹이기도 하고 스스로 다시 먹는 경우도 있다.

